

# 전남도, 시군구연구고산업 협업프로젝트 2년 연속 전국 최다

화순·해남·완도·신안 선정...중소기업 총 82억 지원  
기술 경쟁력·역량 강화...연구고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전남도가 올해 시군구연구고산업육성사업 협업프로젝트 공모에서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성과를 거뒀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 화순 바이오산업, 해남 뿌리·조선산업, 완도 수산양식업, 신안 신소재작물 등

4건의 과제가 선정돼 지역 연구고산업의 경쟁력과 시·군 간 협업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완도 'ICT·BT 융복합 도시마 명품화사업', 화순 '천연염색 신소재 R&D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한 고

품질 타월사업', 구례 '산수유와 지리산 권 약용 자원을 활용한 행복생활권 전통 산업육성사업' 등 3개 과제가 선정됐다.

협업프로젝트는 지역 연구고산업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의 정책 수단을 연계해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시·군에는 2년간

국비 58억원이 지원되며,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총 82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선정 시·군의 연구고산업 분야 중소기업은 신청을 통해 시제품 제작·마케팅·판로 개척 등 사업화 지원, 패키지 지원, 생산성 향상,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을 2년간 연 최대 9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도와 사업 수행 주관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해부터 통합 워크숍과

시군 대상 사업설명회를 열어 과제 발굴과 예비선정 지원, 과제기획 고도화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8개 시·군 18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인증, 기술지도·컨설팅, 판로 개척, 생산성 향

상 등 319건의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성과를 거뒀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2년 연속 전국 최다 과제 선정은 전남의 품류 산업과 주력산업 육성에 대한 도의 정책적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며 "앞으로 도 시·군별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협업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해 지역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 창출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최대 251명 최장 170일 수사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3대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251명 규모의 2차 특검팀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 간 수사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토부가 사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 기관이 조사를 맡으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정됐다.

또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담은 안전도 심의됐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주암댐에 수상 태양광 설치 가시권”

김문수 의원 제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사진)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이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

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9일 '상수원관리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



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 규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이 연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인구 감소지역 자동차 번호판 발급 지원”

정준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 갑, 국토교통위원회·사진)은 20일 인구 감소지역에 소재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가 등록번호판 제작·발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도지사가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대행자는 발급수수료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이 전국 단위로 가능해지면서, 광주전남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등록 수요가 크게 줄어 발급 수수료만으로는 사업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번호판 발급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장기



적으로는 주민들이 번호판 발급을 위해 인근 도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생활 밀착형 행정 불편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에게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행정 공백을 사전에 막고, 광주전남과 같은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불편 없이 자동차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광주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 98% ‘적합’

광주에서 유통된 농산물 중 98%가 잔류농약 기준을 통과했다. 다만 상추, 깻잎 등 일부 채소류에서는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돼 압류·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서부·각화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유통된 농산물 4316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45종을 검사한 결

과, 98%에 해당하는 4229건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87건(2.0%), 2626kg을 압류·폐기 조치해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요 품목은 상추 11건, 들깻잎·취나물 각 7건, 당귀잎·숙각 각 5건 등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고문의 062)370-7070  
구독문의 062)370-7080

## 뉴스는 진실이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광남일보를 구독해 주세요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3-4층 [우/61234] · T.062)370-7000 · F.062)370-7005

광남일보